

Now after these things Jesus showed himself again to the disciples at the sea of Tiberias; and this is how it happened. There were together Simon Peter, and Thomas called Didymus [the twin], and Nathanael of Cana in Galilee, and the sons of Zebedee [James and John], and two other [unnamed] disciples. Simon Peter said unto them, I'm going fishing. They said unto him, We'll go with you (21:1-3).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쌍둥이) 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요한과 야곱) 과 또 다른 제자들(이름이 알려지지 않음) 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1:1-3).

Now, here's a classic example of human leadership. Simon was evidently a natural leader, and he said, "I'm going fishing." And they all said, "We'll go with you." In a sense, Simon is going back to the old life. He had been a fisherman before he ever met Jesus. That's the way he made his livelihood, that's the life he knew and no doubt enjoyed. He was fishing when Jesus called him to leave his nets and to follow Him. "And I will make you to become fishers of men." Jesus had told the women to tell the disciples to go up to Galilee, He would meet them up there. And they had, no doubt, come up to the Galilee, but Jesus hadn't shown up yet. Peter, being the impetuous, impatient person that he was, when the Lord didn't show, he said, "Well, I'm going fishing. This is probably all over. It was a great time; it was a marvelous experience, it was an exciting life. But, hey, we can't live forever in memories; we've got to get on with living. I'm going back fishing. I'm going fishing." They said, "Well, we'll go with you." And so, they got into the ship and they fish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인간으로서 지도자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타고난 지도자 였으며 그 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전에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불렀을때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만나리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의심치 않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성 급하고 참을성 없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끝장 난것 같다. 좋은 시간이었어. 훌륭한 경험이었지. 그렇지만 기억속에서만 살수는 없잖아. 살길을 찾아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도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갈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 오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But when the morning was now come, Jesus was standing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n't know it was Jesus. And Jesus said unto them, Did you catch anything? (21:4-5)

Typical question to ask fishermen.

And they answered him, No. He said unto them, Cast your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ship, and you will find (21:5-6).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21:4-5).

어부들에게 묻는 전형적인 질문 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21:5-6).

Notice how sure Jesus is.

They cast therefore, and now they were not able to draw it in for the multitude of fish. And therefore that disciple whom Jesus loved, [John] said unto Peter, It is the Lord.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girt his fisher's coat unto him, (for he was naked,) and dove into the sea and swam to shore (21:6-7).

They were only about a hundred yards out.

And the other disciples came in a little ship, (for they were only about a hundred yards away,) and they were dragging the net with fishes (21:8).

예수께서 얼마나 확실하신지를 주목하십시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21:6-7).

그들은 약 100 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21:8).

They had fish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they weren't going to let this catch go, dragging the net with fish.

And as soon as they were come to land, they saw a fire of coals there, and there were fish laid thereon, and bread. And Jesus said unto them, Bring the fish which you have now caught. And Simon Peter went up and drew the net to land full of great fish, a hundred and fifty-three: and for all there were so many, yet was the net not broken (21:9-11).

Now, you remember the last time that Jesus told them to cast the nets on the other side, there were so many fish as they tried to draw them in, the nets began to break. But now, they draw it in, and though there was all of these great fish in it, yet the net was not broken.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지만 이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어 당깁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21:9-11).

예수께서 지난번에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던것을 기억 하실 겁니다. 그때도 그들이 그물을 당길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큰물고기인데도 그물이 찢어지지않았습니다.

Now, why the number one hundred fifty-three? I'll leave Chuck Missler to deal with those issues. It is interesting how that the mystiques always look for some significance in the numbers. And Augustine worked out a formula for the hundred and fifty-three. And his formula is interesting in that he puts together: ten is the number of something and seven is the number of something, so you get seventeen. And you take all of the numbers from one to seventeen and add them up, and you get a hundred and fifty-three. You can play with numbers all kinds of ways and get all kinds of ideas out of them. But just why a hundred and fifty-three, I personally don't know. And I don't really put much stock into this juggling of numbers, and say, "Now, the real mystery here is..." I leave that for other fellows. I'm just too practical. I just say, "Hey, a hundred and fifty-three, that's interesting! I wonder why they counted them." Someone has suggested that that is the symbolic number of the church.

왜 153 마리 일까요? 신비가 들은 숫자에서 의미를 찾는걸 보면 참 재미 있는것입니다. 어거스틴은 153에 대한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만든 공식은 흥미롭습니다: 10 과 7 과 13 의 숫자가 각각 의미를 가집니다. 1 에서 부터 17 까지의 모든 수를 합하면 도합이 153 이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리 저리 맞추고 의미를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왜 153이냐? 난 모르겠습니다. 또 숫자를 맞추고 흔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신비한것은 여기에 ..." 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구하도록 남겨 두겠습니다. 나는 너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보게, 153, 그거 흥미 있네! 왜 그걸 헤아렸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Now, we do know that there are symbolic numbers; that seven is the number of completion. Seven days in a week, seven notes on the scale. And seven is called the perfect number, the number of completion. Whereas eight is the number of new beginning. Because if you come to a complete seven, then the next note would be the eighth note, but you're beginning a new scale. Or you come to seven days, a complete week; and the eighth day is the beginning of the new week, so you come to a new week. And so, the number of new beginning is the number eight.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 은 완전의 수 입니다. 일주일이 7 일이고 악보에도 7 음 이있습니다. 그래서 7 을 온전한 수 또는 완전의 수 라고 합니다. 8 은 새로운 시작의 숫자 입니다. 완전히 7 번이 되면 그 다음 악보는 8번 악보로 새 음정의 시작이 됩니다. 혹은 7 일이 되었으면 완전히 한 주간이 되며 여덟째 날은 새로운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주간 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숫자는 8 입니다.

Now, significantly because Jesus is a new beginning for men, every name of Jesus in the Greek language, when the numeric value of the letters of the name are totaled, they are always divisible by eight. The

Christos, the Curios, the Jesus and all...when you total the numeric value of the letters, they're always divisible by eight. We know that thirteen is the symbolic number for Satan. And all of the names for Satan in the New Testament, when you add the numeric value of the names, they are always divisible by thirteen. There are those who have written some very interesting books on this particular subject. One of them is "Biblical Numerics" by Pannon. And more recently, Jerry Lucas has written one called "Theomatics." But again, I leave it to others to get involved in these number kind of things.

헬라어의 글자에 숫자를 예수의 이름에 적용하여 전체 숫자를 합치면 언제나 8로 나뉘어 지며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나 '쿠리오스' 또는 예수 등등 글자 한자 한자에 대응되는 수치를 합치면 그숫자는 8 로 나누어 집니다. 13 은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의 수를 합하면 13 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제목을 다루는것을 쓴 책들이 여러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성경적 분수들 (Biblical Numerics)" 이라는 책이며 파논 (Pannon) 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리 루카스 (Jerry Lucas) 가 "하나님에 관한 수학 (Theomatics)"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숫자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 놓겠습니다.

Forty, for instance, is the number of judgment. Twelve is the number of human government. Twelve apostles, the twelve tribes...though there were actually thirteen, but always referred to as twelve tribes...the number of human government. Six is the number of man, imperfection. And the numbers do have a symbolic meaning.

예를 들면 40 은 심판을 상징하며 12 는 인간이 만든 정부를 상징합니다. 12 제자들 과 12 지파들 ... 실제로는 13 지파들입니다만 항상 12 지파라고 하며 인간들의 정부를 상징 합니다. 6 은 사람과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숫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one-fifty-three, they say, is the symbolic number of the church, which I find to be interesting. That the net was full, and yet it didn't break. Jesus said, "All that the Father hath given Me are Mine. No man can pluck them out of My hand." Now, in the earlier net-breaking thing, you have maybe the evangelism, where you're gathering in all kinds, and you don't hold onto them all. But once they are truly in, no man plucks them out. "The net, yet for its number of great fish, yet it didn't break."

그들이 말하기를 153 은 교회를 상징하는 수 라고 하는데 흥미 있는일입니다. 그물에 가득찼지만 찢어 지지는 않았습디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것이 내것이온대 저희를 내손에서 빼앗을자가 없느니라." 일찌기 그물이 찢어진것에 관하여는 당신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곳에서 전도를 할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하는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그속에 들어 갔다면 그들을 빼내어 올자가 없습니다. "이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I find it interesting that what they could not all do in their own efforts out in the boat when they tried to pull the net into the boat, Peter was able to do by himself because Jesus told him to do it. Jesus said, "Now go draw the net," and Peter, because Jesus had commanded it, was able to do it by himself though all of them weren't able to do it earlier. The strength of the commands of Jesus. The very fact that He has told me to do it, if I will just endeavor, I can do it. Because He gives me the ability to obey any command that He gives to me. And so, service offered to the Lord. You see, we can sometimes go out and try and do things on our own and are

totally unsuccessful. "I'm going fishing." "We'll go with you." Human energy, human effort. They knew how, they knew how to throw the nets. They knew where the fish usually were. But going out on their own, they were totally unsuccessful. Jesus comes along, and He says, "Hey, cast it over on the right side and you'll find." Now their service is directed by the Lord. And notice the difference; when you're doing something that the Lord is directing you to do, rather than just doing something out of your own impulses. Service directed by the Lord is so totally rewarding, you can't even pull in the nets.

나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드리려고 노력했으나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때 혼자라도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서 그물을 끌어 올려라” 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전에 할수없었던것을 베드로 혼자서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것을 우리가 실행할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명령 하셨을때 우리에게 순종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그 봉사가 하나님께 드러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슨일을 시도하고 애써보지만 완전 실패로 끝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것들은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법도 알았고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도 알았으며 또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완전 실패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봉사는 주님이 지휘하신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기보다 주님이 지휘 하시는것을 우리가 행할때 일어나는 차이점을 보십시오. 주님이 지휘 하시는 봉사는 완전히 상급이 따를뿐만 아니라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정도로 결실이 큼니다.

And I often, when I go out and talk to people who want to hear about what God has done here at Calvary Chapel, I say to them, "Look, when the nets get so full, you can't pull 'em in any more, you know there's only one reason for it. Like John said, it's the Lord! It's just service directed by God, and it is always fruitful; it's always productive. It's the Lord! It isn't man's genius. It isn't some fancy program that we have. It isn't our great and glorious organ that we paid \$500,000 for that has the largest pipes in the world. It isn't our marvelous choirs. It's the Lord!" People have a difficult time understanding this. But it's God-directed service. Jesus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and directing the activities. They are fruitful.

갈보리채플 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찼을때 당신이 그들을 끌어 들일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요한이 말한것 처럼 “주 시라!” 그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신 봉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많고 생산적입니다. 주님이 하신것이며 인간의 비상한 제주로 된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프로그램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500,000 불썸이나 주교 최신식 파이프 올겐을 사다놓은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성가대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봉사입니다.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활동을 지시 하십니다. 그결과는 좋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Jesus said unto them, Come and ea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to ask him, Who are you? knowing that it was the Lord. Then Jesus came, and he took the bread, and he gave it to them, and the fish likewise (21:12-13).

He had done this before, divided bread and fish among them.

Now this is the third time that Jesus showed himself to the disciples, after he was risen from the dead (21: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21:12-13).

주님은 그전에도 이렇게 하셨던것 처럼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21:14).

So, John records the first three times. Jesus did appear on other occasions after this, but this was the third time in order.

When they were through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 (21:15)

The word love here is *agapas*. It is a Greek word of deep love used of God's divine love. It is a supreme love. It is a giving love. "Lovest thou Me?" *Agapas*, divinely, fervently, more than these. What were the "these"? Maybe the one hundred fifty-three fish still flopping in the nets over there. "Do you love Me more than your livelihood? Do you love Me more than the greatest success in your chosen profession? Having the height of success in your chosen field, do you love Me more than that, Peter? How much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요한은 처음 세차례를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사건 이후에도 나타나셨으며 이것이 순서대로는 세번째 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1:15).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용하는 헬라어로서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는 사랑입니다.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것들" 이 무엇입니까? 그물에서 뛰는 153 마리의 생선일 수도 있습니다. "너의 생활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네가 택한 직업에서의 대 성공 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베드로야, 너의 택한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는것보다 날 더 사랑 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 하느냐? 이것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Or the "these" could be referring to the other disciples whom Peter had avowed that he loved the Lord really more than them in an off-handed way. For Jesus had said to His disciples,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onight because of Me." And Peter said, "Lord, though they may all be offended, I will never be offended." In essence saying, "Lord, I am more faithful, and I love You more than the others." And Jesus said, "Peter, before the cock crows, you'll deny Me three times." "Impossible, Lord. If they would slay me, I would never deny You." But he did. And Jesus could be recalling that failure when He said, "Peter,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 And He could be referring to the other disciples there. We don't know the "these" because we weren't there to see what Jesus was looking at, or beckoning or motioning towards.

혹은 "이것들" 이 베드로가 생각없이 모든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맹서 했던 다른 제자들을 가리킬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을때 베드로는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기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말한것은 “주여, 나는 더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주님을 더 사랑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오늘밤 닭 울기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 하리라” 고 했을때 그는 “주님, 말도 안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 하느냐?” 라고 물으신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 시키기 위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가리킬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없었으므로 예수께서 무엇을 쳐다보셨는지 무엇을 향해 손짓을 하셨는지 알수 없기때문입니다.

Peter said,

Yes, Lord; you know that I phileo you (21:15).

Now, he did not use Jesus' word for love, but he used another Greek word, which is a word of fondness, or affection. "Lord, you know I am fond of You." Jesus didn't say, "Peter, are you fond of Me?" He said, "Peter, do you love Me...divinely, fervently?" Peter said, "Lord, you know that I am fond of You."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 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21:15).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호한다 또는 좋아한다 또는 애정의 뜻을 가진 헬라어를 사용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좋아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니?” 라고 하지 않았습디다.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 하느냐? 고 물으셨습디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좋아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And Jesus said unto him, Feed by lambs (21:15).

“You're not to be out here fishing, Peter. I told you to leave your nets and to follow Me. I'll make you to be fishers of men. Now, feed My lambs.” The Lord is interested that His lambs be fed. Jeremiah said that, "The Lord will give them in that day pastors after His own heart, who will feed them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would be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 When I read that passage in Jeremiah after having been a pastor for many years, I realize my failing. And I repented before God. And I determined from that day on I wanted to be a pastor after God's heart who would feed the flock with the knowledge and the understanding of God. "Feed My lambs," Jesus said. "Do you love Me? Feed My lambs."

예수께서 ...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15).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돼. 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거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의 양들을 잘 먹이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그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그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저희를 양육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가리킵니다. 내가 오랜동안 목회를 하고난후 예레미야 3장 15절을 읽었을때 내가 목회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후 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로 양떼를 먹이는 하나님과 마음을 닮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The second time Jesus said unto him, Simon, son of Jonas (21:16),

Lovest--using the same Greek word as He did before, *agapas*,

lovest thou me [divinely, fervently]? And he said unto him, Yes, Lord; thou knowest that I phileo you (21:16).

I am fond of you, Lord.

And he saith unto him, Feed my sheep (21: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21:16).

사랑하다 - 먼저 사용했던 같은 헬라어 아가페 (Agape) 를 사용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좋아 합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21:16).

The word *feed* here is a different Greek word, and it literally means "to tend my sheep, or to watch over my sheep, to be a shepherd over my sheep, take care of my sheep."

And he said unto him a third time,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21:17)

And this time Jesus used Peter's word, *phileo*. "Peter, are you fond of Me?" And Peter was grieved because this third time, Jesus used his word and said, "Are you fond of Me?" It hurt Peter deeply that Jesus had reduce Himself to Peter's level.

여기있는 “먹이다” 는 또 다른 한 헬라어 단어로 그것의 의미는 “양을 치다, 내 양을 지키다. 양무리의 목자가 되다, 양을 돌보다” 입니다.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21:17).

이번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단어 필레오 (Phileo) 를 사용 하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것이 세번째 이므로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단어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 예수께서 자신을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었을때 그것은 베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God will always meet us on whatever level we will meet Him. But it is tragic when we bring God down to our level, rather than our rising to His level. But God will meet us on whatever level we will meet Him, and He will do His best for us on that level. I'm convinced that we often limit that work of God in our lives, because we won't rise to the level that God wants us to dwell upon.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될 그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끌어 내려서 만나는것은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만나 주시며 그 수준에서 가장 좋은것으로 행하십니다. 빈번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 가지 않기때문입니다.

God made concessions for the children of Israel. God wanted to be their King. He wanted them to be unlike all of the other nations, in that they would not have any visible king; but that the world would know that God ruled over these people. But they didn't want that. They came to Samuel and they said, "Appoint a king over us like the other nations." And Samuel was grieved. And the Lord said unto Samuel, "Don't grieve because they haven't rejected you, they have rejected Me from being king over them. And now, you anoint the one that I will show you to be the king." You see, God is now making a concession. He's coming down to their level. It's sad, though, when we bring God down to our level, rather than rise to His level, because we're not living then on the highest plane. And God would have us to live life in the highest plane. He'd draw us to His level if we would only but do so.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이백성을 다스리시는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청 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할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못하게 하려함이라.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하는자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보다시피 하나님이 한걸음 양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 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수준 까지 끌어 올리시려 합니다.

But Jesus came down to Peter's level. "Peter, are you fond of me?" And Peter was grieved because the Lord had to come down to his level. And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Despite what TV preachers say on Channel 40. "And you know that I am fond of You." He wouldn't come up, because he couldn't come up. He would love to, I'm sure. But Peter was always guilty of speaking impulsively and getting rebuked for it.

그러나 예수 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니?" 주께서 그의 수준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 했습니다. 채널 40에 서 텔레비전 설교가들 이 하는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좋아하는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는 높은 수준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수준에 올라갈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수준에 오라가기를 원하는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항상 충동적으로 말하는 잘못을 저질러곤 했으며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When Jesus said, "Who do men say that I am?", Peter said, "Well, thou art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said, "Blessed art thou, Simon Bar-Jonah.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at unto you, but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And I'm sure Peter puffed up and said, "Hey, fellows, you hear that? Revelation! I'm tuned in! You heard that, didn't you fellows?" And Jesus at that point, began to tell His disciples how that He was going to go to Jerusalem and be turned over to the hands of sinners and they would crucify Him and slay Him. And on the third day, He would rise again. And Peter said, "Oh, Lord, never, never, be that far from you!" And Jesus said, "Get thee behind Me, Satan. You're an offense unto Me.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what comes from God and what comes from man." His foot in his mouth, speaking

impulsively!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his night because of Me." "Oh, Lord, though they're all offended, I'll never be offended." "Peter, before the cock crows, you'll deny Me three times." "Though they kill me, I'd never deny You." Speaking impulsively, having to eat his words.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물었을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시니라.” 분명히 베드로는 우쭐해져서 “얘들아, 너희들 들었니? 계시를! 나는 감을 잡았어! 너희들 들었지, 확실히 들었지?”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어져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것을 가르치기 시작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 주님, 결코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청 했습니다. 그 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로다. 너는 하나님께로서 오는것과 사람에게서 오는것을 분별 못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충격적으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 하셨을때 베드로는 “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야, 오늘밤 닭울기전에 세번 나를 부인 하리라.” 베드로는 “그들이 나를 죽일지언정 주를 부인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한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Now, Jesus had said,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he it is who loves, agapas, Me." With a divine, fervent love. How is it shown? By keeping His commandments. Peter wasn't keeping His commandments. "I'm going fishing." Jesus didn't say, "Peter, go fishing." He said, "Wait in Galilee. I'll meet you there." He said, "Leave your nets and follow Me." And he was in the very act of disobeying the command of Christ, going back to the nets. And therefore when Jesus said, "Agapas, do you love Me divinely, fervently?" he could not say, "yes," because Jesus would then have said, "Then what are you doing out there in that boat leading these other fellows on this fishing venture when I didn't tell you to?" And Peter knew that he was trapped, and he knew that he couldn't say, "I love you divinely, fervently." And so, he had to use that lesser Greek word, "I'm fond of You," and tragically had to bring Jesus down to that level. And it hurt.

예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아가페) 하는 자니라” 고 하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께서 “베드로야, 물고기 잡으러 가라” 고 하시지 않았습디다. 그는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거기서 만나리라” 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 하는 바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하니?” 라고 물었을때 “예” 라고 대답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다면 내가 네게 하라고 시키지 않은것과 다른 제자들을 물고기 잡으러 나오도록 하여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거지?” 라고 물으실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 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 합니다” 라고 말할수 없는 형편인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단계 낮은 헬라이어 “나는 주님을 좋아 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며 불행히도 예수께서 그 수준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Jesus said, "Feed My sheep!" This is the word *feed* again. So, you have "feed My lambs, take care of My sheep, and feed My sheep." "Do you love Me?" This is what the Lord would have you to do. This is His command: feed the sheep.

And then He said unto him,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 you girded yourself [you dressed yourself], and you went wherever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forth your hands, and

another will gird you, and they'll carry you where you won't want to go. And this Jesus was speaking, signifying by what death he should glorify God (21:18-19).

그리고 난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18-19).

He was telling Peter that He's going to be crucified. "When you were young, you dressed yourself and you went where you wanted, but one of these days others are going to dress you and they're going to take you where you don't want to go." They're going to take you to a cross. And sure enough in years to come, when Peter was in Rome, he was sentenced to die on a cross. And Peter said, "I have one request. Please crucify me upside down; I'm not worthy to die as did my Lord." And he was crucified upside down. But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Jesus here tells him by what death he's going to die.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들이 너를 십자가에 끌고 가리라. 몇년후에 때가 왔을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때 그는 십자가 처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십자가에 꺼꾸로 메달아 주세요. 나는 내 주님이 돌아 가신것처럼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후에 그는 십자가에 꺼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And immediately after telling him what death he's going to die, he said, Follow me (21:19).

"You can go back fishing, but follow Me. It's going to be tough; it's going to be a cross. You're not going to drive a Rolls Royce. You're not going to live in a fancy mansion. It's not going to be easy, Peter. But follow Me."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19).

“네가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순 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그것은 어렵고 십자가가 될것이다. 네가 롤스로이스 를 운전하게 되는게 아니다. 또 호화로운 저택에 살게 되는것도 아니다. 베드로야,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러나 나를 따르라.”

Then Peter, turning about, seeing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following; ...he said unto him, What about him, Lord? (21:20-21)

Peter, back in the same old position, speaking out of turn again. "What about him, Lord? What shall this man do?" And Jesus in essence, said, "Peter, that's none of your business. I'm talking to you about you. You worry about yourself. Don't worry about him."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21:20-21).

옛날의 위치로 돌아간 베드로는 자기의 차례가 아닌데도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네게 너에 관한것을 말하고 있는거야. 너는 네 걱정이나 하고 그에 대해서는 걱정마라.”

If I should will that he lived until I come again, what difference does that make? (21:22)

“You just hope, Peter. You're going to be crucified.” "Oh, but what about him, Lord?" Jesus said, "Hey look, Peter, you take care of yourself, your relationship with Me. If I will that he should live until I come again, what's that to you? What difference does that make to you?"

You follow me (21: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21:22)

“베드로야, 네가 원하는대로 너는 십자가에 죽을것 이다.” “오, 그렇지만 저 사람은요, 주님?”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야, 너와 나의관계를 잘 돌보아라. 내가 돌아올때 까지 그를 머물게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차이라도 있니?”

너는 나를 따르라 (21:22).

Now, the Lord always wants to deal with each of us personally, and that personal relationship with us. The Lord will talk to me and tell me about me, and the Lord will talk to you and tell you about you. I put very little stock in people coming up to me who say, "The Lord told me to tell you..." I wonder when He forgot my number. "What about him, Lord?" "No, Peter, I'm talking about you. It doesn't matter what I've intended for John. You follow me."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들과 개인적 관계도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에 관하여 말씀해 주실것입니다. 또 당신에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당신에 관하여 말씀 하실것입니다. 내게 와서 “주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전화 번호를 잊어 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여,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아니야, 베드로야, 나는 너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내가 요한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Now, because Jesus said, "If I will that he remain till I come," many picked up that statement and misinterpreted it. And they said Jesus said that He was going to come before John died. But John is careful to correct that misunderstanding. And John points out that is not what Jesus said. Jesus only said, "If I will that he should tarry till I come." And so, John seeks to correct that common mistake that had gone out within the early

church, "Oh, the Lord is going to come before John dies." John said, "No, no, that's not what He said. He said, 'If I will that he tarry,' but he didn't say he will tarry."

but, If I will that he tarry, what is that to you? (21:23)

예수께서 “내가 올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이 죽기전에 예수께서 오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심스럽게 이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이 그뜻이 아니며 그가 말씀하신것은 “내가 올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에 퍼진 공통적인 오해인 “오,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은 “아니야,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가 말씀 하신건 ‘내가 그를 머물게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하겠다’ 라고 하신것이 아닙니다.”

Now John tells us that he knows that the things he is writing are true because he witnessed them himself. And then he goes on to tell us that there are so many other things that actually happened, that could have been related. As he said earlier, "Many other things did Jesu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And now he says,

There are a lot of other things that happened, and I suppose that if you would write down everything that could be written about Jesus, that the whol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should be written on the subject (21:25).

이제 요한은 자신이 증인이므로 그가 쓰고 있는것이 모두 사실인것을 그가 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그와 관련되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의 행하신일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것도 많다” 고 합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줄 아노라 (21:25).

It's a subject that is so vast that we will never fully comprehend it on this side of eternity. But it is a subject that is so vast, it'll take all eternity to comprehend it. I look forward to eternity as a growing experience, a learning experience. As Paul tell us in Ephesians, "And God, through the ages to come, shall be revealing unto us what is the exceeding richness of His love and grace and mercy towards us in Jesus Christ" (Ephesians 2:7). God's love for you and His mercy towards you is so vast, He's going to take all eternity to reveal its fullness. Throughout the ages to come, we'll be learning of how much God does love us. So, impossible to write it all in a book, or in books. The world isn't big enough to contain the libraries that should be written on the subject of Jesus Christ. It's an ever-enlarging revelation to our own hearts, that work of God's Spirit, that work of God's love in our lives. Shall we pray.

주제가 너무나 방대 하므로 영원의 이쪽에 관한것도 완전히 이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 방대 하기때문에 그것을 이해 하는데 영원이 걸릴것입니다. 배우고 자라는 경험으로서의 영원을 기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엡 2:7).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완전히 계시 하시려면 영원한 세월이 걸릴것입니다. 닥아올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를 배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책이나 여러 권의 책에 다 쓰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쓰여질 모든것을 담기에는 이 세상도 너무 작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끝없이 더 커져가는 계시입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are and all that You've done. We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who died and rose again, and who lives tonight making intercession for us. Lord, bless us we pray, as we learn of Thee and as we learn of Your love. And as we grow in this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n whose name we pray. Amen.

May the Lord be with you and give you a beautiful week. May you just sense His presence to such an extent that you won't need any kind of an artifact or relic to remind you that the Lord is with you. But may you come to that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His presence by the things that He is doing in Your life. May things happen in such a way that you realize, "Ooh, the Lord is here with me." That's always a neat flush when you get that, ooh!...you know? The Lord is here. May you experience that this week, as you walk with Him in an ever-deepening and enriching fellowship through His Holy Spirit.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행하신일을 감사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시니 감사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한주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재 하심으로 인해 그분이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줄 부적이나 형상이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그의 임재 하심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일을 깨달을수 있도록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것은 항상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 주님이 여기 계시네.” 그러한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때 성령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